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우 아 미 박 준 성 정 태 연[†]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집착행동을 매개로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집착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집착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집착행동은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거나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구성요인은 파트너에 대한 의심, 거부에 대한 두려움, 질투, 외로움과 불완전감, 파트너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민성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집착행동을 매개로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집착행동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관계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착행동의 경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랑 수준과 파트너의 행동(친밀감 불편, 보살핌, 호감표현)은 여성의 집착행동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집착행동 유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집착행동을 구체적으로 개념화 시켰으며, 집착행동이 애정관계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남녀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집착행동, 애착, 사랑, 파트너 행동, 신뢰감, 교제기간, 관계지속, 성차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32, E-mail : tjung@cau.ac.kr

그 동안에 이성교제는 연구자들의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였으며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Collins & Read, 1990; Davis & Latty-Mann, 1987;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9; Hindy, Schwarz & Schwarz 1994; Sternberg, 1986; Wenzel, Graff-Dolezal, Macho & Brendle, 2004).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이성교제의 중요성이 논의 된지 오래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성교제를 통한 사랑의 경험을 일과 함께 성인 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해 왔다(Cole, 1948; Erickson, 1968; Levinson, 1978; Sullivan, 1953). 이성교제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성인전기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감과 친밀감 발달에 필요하며, 나아가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Collins & Sroufe, 1999; Furman & Wehner, 1994).

그러나 문제는 이성교제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성교제가 항상 즐거움과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인전기에 접어드는 대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이 애정관계에 있으며(유제민, 2002) 원만하지 못한 이성교제가 대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될 만큼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최순남, 1989)점에서, 애정관계가 잘 진전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괴로움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Kemper & Bologh, 1981; Reis, 1984).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착행동의 부정성이다. 집착행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방해로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손실시키며(Tennove, 1979), 관계적 차원에서 애정관계에 위협적인 요인이지만(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스스로 중단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Tennove, 1979). 집착행동을 애정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이 야기 될 수도 있는데(권석만, 1997), 집착행동은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심지어는 관계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권희경 등, 2005; Baxter, 1990). 실제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집착행동은 애정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연구를 통해 집착행동이 애정관계의 방해요인 중에 하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며(권희경 등, 2005; 이경성, 한덕용, 2005; Kelly & Burgoon, 1991), 집착행동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안경애, 2003) 최악의 경우에 상대 파트너는 자율성 보존을 위해 관계를 파기하게(Baxter, 1990) 하는 관계파탄의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애정관계에서 구속과 집착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상적 관계의 중요한 기준이며 서로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애정 관계에서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이경성 등, 2005).

이렇듯 이성 간에 발생하는 집착행동은 서로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애정관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국내외에서 집착 행동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권희경 등, 2005; 장재홍, 2005; Peele & Brondsky, 1976; Pistole, 1994; Tennove, 1979),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집착 행동이 관계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들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착행동의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며, 이성 간에 발생하는 집착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한 바는 없어 보인다(권희경 등, 2005; 안경애, 2003; 이경성 등, 2005; 장재홍, 2005). 또한 서양에서도 성인애착 유형과 관련해서 몇몇 집착행동에 관한 연구(Feeney, 1994; Peele & Brondsky, 1976; Pistole, 1994)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개념이 모호하고 접근수준이 국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현상 면에서 집착행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애착유형의 몰두형, 편집적 사고, 스토킹 등의 주제들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애착유형 중 하나인 몰두형과 편집적 사고는 상황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게다가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특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요소이다. 또한 스토킹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정도 면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집착행동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집착행동은 이성관계에서 보통의 연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단순히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변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특성과 행동특성에서 본유의 기본 기제는 존재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

인 것이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상황과 맥락에 의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오세진, 2005). 예를 들어 질투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관계 지속기간에 따라,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Demirtas & Donmez, 2006), 또한 개인의 사랑양식은 데이트 경험과 같은 현재와 과거의 사랑경험이나 사랑횟수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장휘숙, 2002). 연인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자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즉 애정관계에서 파트너가 보여주는 심리특성과 행동특성이 전적으로 파트너만의 고유특성 때문에 유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Kelley et al., 1983). 대인관계이론에 따르면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친밀한 관계는 다른 관계들보다 행동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더 크며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파트너들의 생활은 평행적이거나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서로 행동과 행동의도, 사고 및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 즉 애정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경험이 모두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홍대식,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집착행동을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규정짓고, 그 구성개념을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개인적 특성에 국한해서 연구하지 않고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성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적인 관계이다. 때문에 이성관계 연구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변인들은 크게 개인적 특

성과 관계적 특성, 파트너 특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여러 문헌의 고찰을 통해 집착행동의 유발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예측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착행동의 유발과 관련된 변인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집착행동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헌에 따르면 여자는 타인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더 지향하지만, 남자는 타인으로 부터의 분리와 개별성을 더 지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igan, 1982). 또한, 면접법에 기초한 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몰두하는 성향이 높은 반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부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타인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icromonaco & Camelley, 1994). 이러한 남녀 특성은 이성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성관계에서 여성의 정체감은 관계 맥락에서, 남성의 정체감은 분리맥락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여성은 분리에 더 위협을 느끼고 남성은 친밀감에 의해 더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한다(Rubin, 1983).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종합 해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집착행동의 경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파트너 요인이 집착행동과 더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결과를 여성에 초점을 두어 논하였다.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애착, 사랑, 파트너

‘성인 애착 유형’은 개인적 특성으로 집착행

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집착행동의 정의와 그 구성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집착행동의 기저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성격적으로 불안 성향이 큰 사람은 집착행동을 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불안 성향은 대인관계 맺기의 가장 큰 방해요인 중 하나로 이는 대인관계 뿐 아니라 개인의 정서, 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개인의 불안 성향을 성격적 특성으로 보고 그 원인을 애착이론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애착과 관련한 연구들은 성인기 타인과 관계 맺는 특징은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유형의 영향을 받은 비교적 일관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owlby, 1980). 예컨대, 안정애착의 아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고, 상냥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믿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해 안심애착 패턴을 보이며 만족스럽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회피적인 아동은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타인을 불신하는 회피적인 성인이 될 것이고, 불안/양가감정의 아동은 위의 두 스타일의 중간 형태로서 사랑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거절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홍대식, 2000, 재인용). 애착유형에 근간한 이러한 특성들은 대인관계 패턴뿐만 아니라 성인의 애정관계의 질과도 상관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 성인애착 유형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안정애착 유형은 낭만적 사랑의 경험을 행복하고 친밀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지각한다. 그들은 사랑경험을 통해 행복과 우정, 신뢰를 느낀다고 보고했으며, 상대방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으며 관계도 다른 유형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회

피애착 유형의 사랑의 경험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심한 정서적 기복, 질투심이 특징이다. 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면 불편감을 느끼며 파트너가 자신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까봐 걱정한다. 불안/양가 애착유형은 사랑을 강박관념, 상대와 하나 되고 싶은 열망, 심한 정서적 기복, 극단적 성적 이끌림과 질투로 경험하였다. 그들은 강박적으로 파트너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보고하였다(Hazan & Shaver, 1987).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적 애착은 집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수준’은 관계적 특성으로 집착행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애정관계에서 집착은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입된 상태이다(Tennove, 1979). 이 때문에 혹자는 집착을 사랑의 척도로 간주하기도 한다. 애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행동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향한 애정의 정도와 집착행동의 정도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관적 감정인 사랑을 측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은 사랑의 강약 정도를 논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사랑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사랑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각각의 사랑의 구성요인들은 유형별로 집착행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요인들에 대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김은영, 2001; 박정윤, 1999; Lee, 1988; Hendrick & Hendrick, 1989; Sternberg, 1986; Tzeng, 1993) 사랑의 감정은 크게 열정애와 동반애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홍대식, 2000). 열정애는 격렬한 정서 상태 즉 감정들의 어떤 혼합 속에서 공존하는 다정하고 성적인 느낌들, 의기양양함과 고통, 불안과 안심, 이타심과 질투심으로 가정되며, 동반애는 개인의 생활과 깊게 상호 얽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애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반애에서 정서적 분위기는 더 온건하며, 극단의 열정들 보다 따뜻함과 애정이 더 보편적이다(홍대식, 2000).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파트너에게 몰입하고 관계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랑을(홍대식, 2000) 이성관계에서의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파트너의 행동’은 파트너 특성으로 집착행동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정관계는 이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관계의 특성상 행위의 원인을 당사자의 개인적 속성으로만 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성관계에서는 이자관계인 파트너와 당사자 간에 상호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착행동이 유발되는 데에는 파트너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근거로 Bowlby(1980)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가 자신의 기대대로 나타나 돌보아 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기대를 했지만 부모가 나타나지 않거나 돌보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이성관계에 적용해 보면 파트너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믿음을 파기하였을 때 상대 파트너는 심리적으로 불안이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애정관계에서 파트너의 행동이 관계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이성

관계에서 서로의 상호작용 요구와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폭력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의 파트너에 대한 개입정도가 낮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Berg & Mcquinn, 1986). 또한 파트너를 지지하고 보살피는 행동 즉 파트너가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힘든 상황일 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혹은 심리적인 지지와 위로들을 주는 행동은 애정관계의 만족도를 증가 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은정, 2002). 그 밖에 실험적 연구에서도 파트너의 행동과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과 상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는데 데이트 상대자가 불안을 일으키는 실험적 상황에서 남성의 지지행동이 적은 여성이 남성의 지지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Rholes, Simpson & Orina, 1999).

문헌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의 행동을 예측하는 하위변인으로 권희경 등(2005)이 연구한 보살핌 행동, 친밀감 불편 행동, 호감 표현 행동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는 애정관계에서 행동차원은 애정을 확인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사랑은 하나의 정서인 동시에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주고받는 애정행동을 통해 사랑의 정서가 전달되고 느껴지게 된다고 애정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axwell, 1985). 파트너의 행동특성은 애정관계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대파트너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파트너의 행동특성은 집착행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착행동의 결과: 신뢰감과 교제기간

이성관계에서 신뢰감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성 간의 신뢰감은 세 단계로 발달하게 되는데(Rempel, Holmes & Zanna, 1985), 첫 번째 단계인 예측 가능성은 파트너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행동 패턴을 통해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의존가능성은 예측 가능성 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파트너의 행동 보다는 파트너와의 경험을 통하여 파트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자신을 솔직히 노출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신념은 앞에 두 단계의 신뢰감 요인을 바탕으로 파트너가 계속해서 자신과 관계를 유지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 모형으로 이루어진 신뢰감은 관계가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발달된다(Rempel et al, 1985). 때문에 신뢰감은 애정관계를 안정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상적인 애정관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Hendrick & Hendrick, 1983). 이에 반해 파트너에 대한 불확실감은 이성교제 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Berg & Mcquinn, 1986).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혹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회의와 의심이 들면 그것을 확인하거나 다짐 받으려는 행동을 하거나 미리 파트너를 떠나보내는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권희경 등, 2005에서 재인용). 상술된 내용을 근거로 집착행동은 파트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짐받으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신뢰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곧 관계유지를 어렵게

만들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남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집착행동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집착행동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성관계에서 남녀에 따라,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르며 각 요인(애착유형, 사랑수준, 파트너 행동)이 집착행동을 매개로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집착행동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

방 법

대상

집착행동의 구체적인 개념과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연구를 위해 서울경인지역 성인 남녀 50명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고, 여자는 23명 남자는 27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3.5세(SD=2.8)로 나타났다. 이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1명 이었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9명 이었다. 예비연구에서 얻어진 집착행동 총122 문항을 연애경험이 있는 미혼남녀 790명에게 의뢰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0개 자료를 제외하고 총 750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남성은 365명, 여성은 385명이었으며, 연령은 만18세에서 만39세 범위로 평균 연령은 23.4세(SD=3.44)였다.

측정 및 분석

본 연구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집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집착행동 중 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집착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이 했던 집착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내용 중 같은 의미로 판단되는 것을 내용별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기술들을 토대로 집착행동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문항 122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22개의 문항들은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2명에게 문항의 의미 적절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은 후 의미전달이 애매한 문항은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예비문항 122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반응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소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집착행동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요인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Varimax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착행동의 정의

연인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집착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반응의 분석 결과, 파트너를 소유물로 여기고

표 1. 집착의 정의 (복수응답)

내용	빈도 (%) n = 83
파트너를 소유물로 여기고 파트너를 통제하고 간섭 하는 것	38(45.78%)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	20(24.09%)
파트너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얽매어 있는 상태	14(16.86%)
파트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11(13.25%)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률의 45.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24.09%, 파트너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얽매어 있는 상태라고 답한 비율이 16.86%, 파트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3.25%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응답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착행동이 서양의 Tennove(1979)가 정의한 limerence의 개념¹⁾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이유

이성과의 교제 시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반응의 분석결과 ‘파트너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16.88%이었으며, ‘애정결핍, 열등감, 의존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성향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도 16.8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

1) Tennove(1979)는 집착을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들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연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 병적인 것으로 보았다.

로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16.23%이었으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15.58%, ‘파트너의 관심과 애정이 적음을 느낄 때’로 응답한 비율이 12.98%, ‘파트너가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11.04%, ‘파트너가 다른 이성에게 인기 있을 때’로 응답한 비율이 10.3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특히 할 점은 집착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집착행동을 개인성향으로 보는 즉 내적귀인을 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집착행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집착행동을 파트너에 대한 애정의 강도나 파트너의 행동 때문이라고 보는 즉 외적귀인을 하는 성향을 보였다(표 2 참조).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

응답자 중 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파트너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가 4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파트너가 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가 27.66%, ‘원래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가 19.15%, ‘자존심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8.51%)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파트너에게 집착했던 이유 (복수응답)

내용	빈도 (%) n = 154
파트너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26(16.88%)
개인성향(애정결핍, 열등감, 의존인 성격)	26(16.88%)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	25(16.23%)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4(15.58%)
파트너의 관심과 애정이 적음을 느낄 때	20(12.98%)
파트너가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17(11.04%)
파트너가 다른 이성에게 인기 있을 때	16(10.39%)

표 3.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내용	빈도 (%) n = 47
파트너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21(44.68%)
집착할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를 더 좋아함)	13(27.66%)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다.	9(19.15%)
자존심 때문에	4(8.51%)

집착행동 요인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집착행동의 내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 성분 분석방법, Varimax 회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이 13개로 추출 되었으나, 요인구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스크리(scree)검사 결과와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6±2로 지정한 후, 순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반복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요인에 중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요인계수가 현저히 낮은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최종 38문항이 선별되었으

며 5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은 전체변량의 55.94%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최종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요인1은 11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5.29%를 설명하고 있고, 파트너의 애정에 대한 ‘의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10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13.05%를 설명하고 있고,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거부 두려움’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9.81%를 설명하고 있고, 파트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질투심’이라고 명명하였다. 4요인은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변량의

표 4. 집착행동의 요인분석표

문항요인	1. 의심	2. 거부 두려움	3. 질투심	4. 외로움/ 불완전감	5. 과민성
나는 파트너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740	.116	.106	.093	.131
나는 파트너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한다.	.738	.173	.146	.127	.063
나는 파트너의 홈페이지,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	.689	.234	.103	.024	.014
나는 파트너의 과거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한다.	.669	.205	.103	-.015	.108
나는 파트너에게 만나는 다른 이성친구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본다.	.658	.195	.282	.073	.020
나는 파트너의 하루 일과를 세세히 알아야 한다.	.649	.211	.166	.211	.073
나는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문자와 전화로 수시로 확인한다.	.615	.218	.197	.291	.199
나는 파트너와 매 시간 문자를 주고 받아야 한다.	.569	.210	.074	.394	.057
나는 파트너가 만나기 어렵다고 해도 만나기를 요구한다.	.545	.369	-.004	.172	.090
나는 파트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초조하다.	.534	.302	.306	.317	.179
나는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지 감시한다.	.492	.325	.336	.172	.034
나는 파트너를 생각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238	.741	.029	-.061	-.037
나는 파트너와 안 좋았던 일들을 자꾸 상상하게 된다.	.180	.684	.074	-.064	.061
나는 파트너 생각 때문에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82	.653	.129	.308	.025
나는 파트너가 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초라한 기분이 든다.	.168	.640	.170	.260	.142
나는 내가 파트너를 사랑하는 만큼 파트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53	.627	.114	.022	.243
나는 파트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주 생긴다.	.316	.612	.111	-.126	.131
나는 파트너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 한다.	.368	.561	.219	.284	.219
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파트너를 따라 다닌다.	.315	.556	.044	.404	-.040
나는 파트너의 사소한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불안울 느낀다.	.329	.555	.218	.212	.252
나는 파트너가 떠날까 봐 불안 해 한다.	.189	.499	.274	.372	.153
나는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한다.	.259	.132	.714	.186	.230
나는 파트너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 질투한다.	.084	.017	.712	.155	.209
나는 파트너가 다른 여성과 연락하거나 말하는 것만 봐도 질투난다.	.262	.204	.697	.206	.066
나는 파트너가 다른 여성을 친절하게 대하면 불쾌하다.	.199	.127	.693	.181	.150
나와 있을 때 파트너에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불쾌하다.	.138	.202	.621	-.033	-.003
나는 파트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화가 난다.	.055	.046	.550	.040	.368
나는 파트너와 항상 같이 있고 싶다.	.059	-.035	.196	.750	.105
나는 파트너가 계속 보고 싶다.	.035	.008	.055	.716	.354
나는 파트너와 매일 만나려고 한다.	.265	.102	-.025	.697	.124
나는 파트너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한다.	.301	.092	.212	.529	.154
나는 모든 것을 파트너와 관련지어 생각한다.	.113	.262	.255	.527	.124
내가 파트너를 생각하는 것 만큼 파트너도 나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049	.067	.168	.175	.787
나는 파트너가 나를 더 사랑해주길 바란다.	-.001	.083	.164	.138	.769
나는 파트너가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276	.179	.183	.332	.569
나는 파트너가 애정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웬지 불안하다.	.227	.390	.299	.098	.531
나는 파트너로부터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지 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한다	.266	.224	.222	.370	.457
나는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 받고자 한다.	.322	.239	.129	.274	.449
eigen value	5.810	4.959	3.727	3.723	3.039
설명되는 변량의 양	15.29	13.05	9.81	9.80	8.00
누가적 설명변량	15.29	28.34	38.15	47.94	55.94
내적일치 신뢰도(Cronbach α)	.91	.89	.83	.78	.83

9.80%를 설명하고 있고,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외로움/불완전감’이라고 명명하였다. 5요인은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8.00%를 설명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민성’으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8이었으며, 집착행동의 5개의 하위 요인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의심이 .91, 거부두려움이 .89, 질투심이 .83, 외로움/불완전감이 .78, 과민성이 .83의 신뢰도를 보였다.

다른 척도와의 상관

다음으로 연구자는 집착행동 구성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권희경 등(2005)이 개발한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하위 변인인 집착행동의 문항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전반적으로 .835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권희경 등(2005)이 개발한 집착행동척도의 각 문항별 상관점수가 본 연구에서의 집착행동의 구성 요인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집착행동의 구성요인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구성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집착행동척도와 기존척도 간의 상관

내용	의심	거부 두려움	질투심	외로움/ 불완전감	과민성	총점
나는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든다.	.345**	.295**	.577**	.364**	.399**	.475**
나는 파트너의 관심이 다른데로 가서 나한테 소홀하면 질투난다.	.238**	.233**	.635**	.293**	.429**	.424**
나는 같이 있든 따로 있든 늘 파트너를 생각 한다.	.226**	.244**	.350**	.595**	.360**	.405**
나는 파트너의 말이 믿기지 않아 추궁한 적이 있다.	.465**	.349**	.422**	.234**	.361**	.471**
나는 파트너가 접하는 이성관계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게 된다.	.604**	.531**	.475**	.297**	.385**	.602**
나는 파트너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확인 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662**	.492**	.451**	.341**	.438**	.624**
나는 파트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싶다.	.475**	.475**	.431**	.499**	.711**	.636**
총점	.693**	.599**	.764**	.603**	.711**	.835**

** $P < .01$

연구 2. 집착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이성 관계에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집착행동이 관계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 법

대상

서울 경인지역의 현재 교제 중인 성인 남녀 350명에게 설문지를 의뢰하였고 이 중 290개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명된 30개 자료를 제외시키고 총 260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응답자 중 남자는 123명, 여성은 137명이었으며 이 중 116쌍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고 나머지 44명은 둘 중 한명만 참여하였다. 기초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260명이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모형검증에 필요한 문항들을 결측치(missing value)로 남겨둔 표집을 제외하고 232명이었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37세(SD 3.13)로 18세부터 35세까지였으며 교제경험은 평균 2.99회(SD 1.43), 교제기간은 평균 21.90개월(SD 21.64)로 나타났다.

측정 및 분석

현재 교제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에 커플 각각에게 이메일로 설문내용을 보

표 6.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제경험, 교제기간의 빈도와 백분율

변수	응답변수	빈도수	백분율(%)
연령 평균 25.37 (SD3.13)	18-20세	15	13.88
	21-25세	108	41.53
	26-30세	128	49.23
	31-35세	9	3.46
교제경험 평균 2.99 (SD1.43)	1회	54	20.7
	2회	46	17.6
	3회	67	25.7
	4회	34	13.0
	5회이상	59	22.6
교제기간 평균 21.90 (SD21.64)	1~ 6개월	80	30.76
	7~12개월	44	16.92
	13~18개월	26	10.00
	19~24개월	22	8.46
	25~30개월	26	10.00
	30개월이상	62	23.84

내주었다.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커플끼리 서로 응답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내용은 웹 형식으로 만들었다. 설문 대상자가 정해진 웹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설문이 진행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설문 응답자에게는 추후 사이버 캐시를 지급하였다. 성인애착, 사랑, 신뢰감, 파트너 요인인 보살핌 행동, 호감표현 행동, 친밀감 불편행동(역채점 척도)과 집착행동 각각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구

성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며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각각의 효과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애착척도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1998)이 개발한 성인기 낭만적 애착척도를 일반적 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와 불안을 측정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애착수준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49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alpha = .849$, $\alpha = .854$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에서 얻은 점수를 연속 변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애착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신뢰감 척도

신뢰감은 Rempel 등(1985)이 개발한 신뢰감 척도 중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두 문항은 파트너의 행동을 예측하는 지각능력을 나타내고, 두 문항은 필요할 때 파트너에게 기댈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 나머지 두 문항은 파트너가 계속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신념을 측정하고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35이다.

사랑유형척도

Sternberg(1986)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세 구성요소 즉, 친밀감, 열정 및 헌신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의 사랑유형척도 (Sternberg, 1988)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 별로 점수가 높은 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본 척도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67로 각 요인별 신뢰도는 친밀감이 $\alpha = .92$, 열정이 $\alpha = .92$ 이며 헌신이 $\alpha = .94$ 이었다.

교제기간

개방형 문항으로 교제한 기간을 개월 수로 척도록 하였다.

파트너 요인

파트너 요인으로 애정 표현행동, 친밀감 불편행동(역채점 문항), 보살핌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권희경 등(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호감표현 행동의 측정 문항 7문항, 친밀감 불편행동(역채점 문항)의 측정 문항 5문항, 보살핌 행동의 측정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92로,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호감표현행동이 $\alpha = .846$, 친밀감 불편행동(역척도)이 $\alpha = .722$, 보살핌 행동이 $\alpha = .802$ 였다.

결 과

집착행동에 대한 성차와 변인 간의 상관

집착행동의 성차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집착행동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이

표 7.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N=280)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인	-														
1. 회이과															
2. 불안이과	.078														
3. 진밀감	-.257**	-.101													
4. 열경	-.175**	-.096	.707**												
5. 현신	-.200**	-.111	.653**	.801**											
6. 보살밀행동	-.178*	-.020	.343**	.249**	.206**										
7. 호감보현행동	-.106	.057	.281**	.246**	.182**	.640**									
8. 진밀감보현행동(β)	-.059	-.101	.246**	.200**	.186**	.401**	.475**								
9. 의심	.058	.282**	-.003	.137*	.046	.010	.094	.002							
10. 거부투려공	.103	.578**	-.394**	.148*	.346**	-.196**	-.077	-.121	.600**						
11. 결투	-.027	.520**	.059	.181**	.142*	-.094	-.090	-.077	.711**	.531**					
12. 의로용	-.169**	.184**	.505**	.707**	.628**	.139*	.143*	.183**	.357**	.154*	.417**				
13. 과민성	-.033	.514**	.153*	.318**	.246**	.021	.010	.003	.561**	.524**	.827**	.640**			
14. 정화행동용점	.025	.514**	.043	.352**	.145*	-.010	.090	-.018	.862**	.827**	.778**	.578**	.840**		
15. 과제기간	.018	-.090	.711-	.548**	.652**	.323**	.252**	.294**	-.103	-.462**	-.040	.361**	.078	-.056	
16. 신뢰감	-.197**	-.185**	.133*	.098	-.000	.011	-.154*	-.137*	-.55	.072	-.040	.000	-.166*	-.146*	-.041

*p<.05, **p<.01, ***p<.001은 역계점 문항임

표 8. 성별에 따른 집착행동 변수의 평균비교

하위요인	전체 (N=260) M(SD)	남자 (N=123) M(SD)	여자 (N=137) M(SD)	t
집착행동총합	2.51(.56)	2.40(.50)	2.54(.58)	2.17**
의심	2.07(.66)	1.97(.59)	2.14(.71)	2.13**
거부두려움	1.96(.55)	1.87(.51)	2.04(.59)	2.50**
질투	2.73(.84)	2.54(.80)	2.79(.91)	2.31**
외로움	3.32(.72)	3.44(.74)	3.22(.69)	2.44**
과민성	3.19(.78)	3.05(.74)	3.3(.81)	2.68**

**P < .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로움 요인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집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집착행동과 주요변수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불안애착은 집착행동의 각각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체기간은 집착행동의 하위변인 중 외로움과 과민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신뢰감과 친밀감은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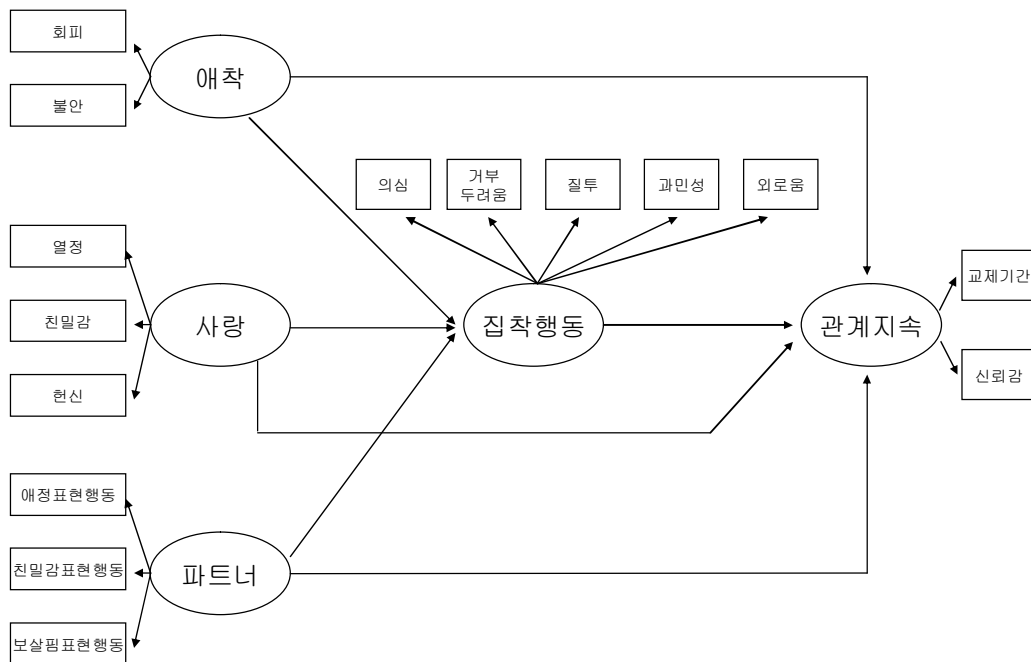


그림 1. 집착행동의 연구모형

두려움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교체기간을 문헌연구와 기초분석을 토대로 애착,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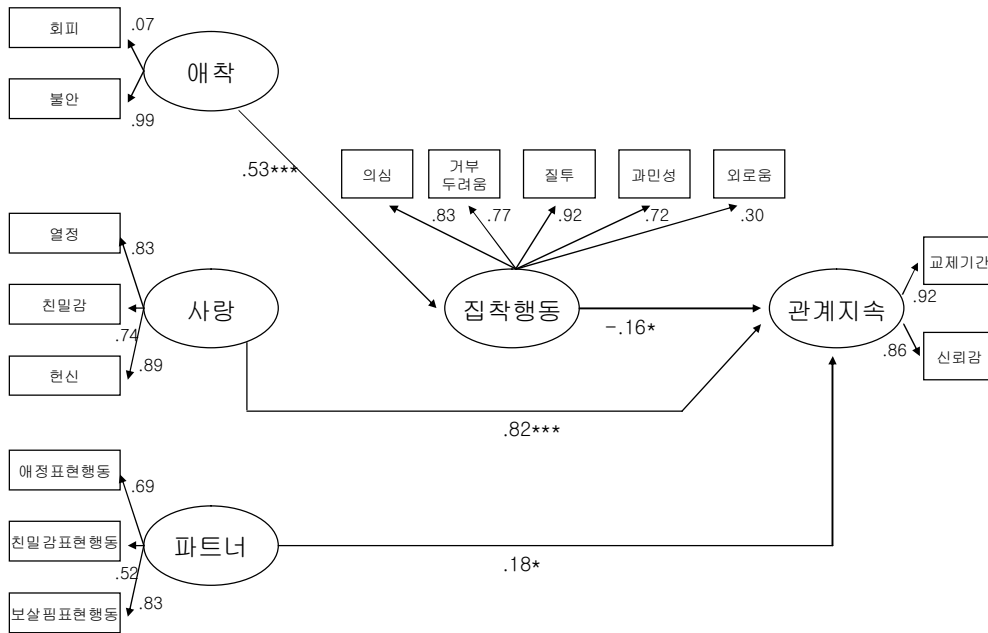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집착행동 모형검증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외로움 요인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열정은 집착행동의 각각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파트너 요인 중 보살핌 행동이 집착행동의 거부두려움과 부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수준, 파트너 행동이 집착행동을 매개로 관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측해 보았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를 가지고 각각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집착행동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남학생의 집착행동 모형검증

표 9. 남학생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애착 → 집착행동	.53	6.08***
집착행동 → 관계유지	-.16	-2.47*
사랑 → 관계유지	.82	9.20***
파트너요인 → 관계유지	.18	2.24*

* $P < .05$, *** $P < .001$

모형 검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가설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81$, GFI=.74, AGFI=.64, NFI=.71, NNFI=.71, RMR=.07 등으로 χ^2/df 의 값이 높고 적합도 지표들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hi^2/df=1.78$, GFI=.88, AGFI=.81, NFI=.88, NNFI=.92, RMR=.04 등으로 향상되었다. 절대적 적합도 지표는 RMSEA=.08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더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다.

본 모형은 관계유지에 대한 변량의 79%를 설명하였다(SMC=.79). 허용되는 SMC의 범위가 .20에서 .99 사이이므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신 등, 2002).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표 9와 그림 2와 같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애착이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고($\beta=.53, p<.001$), 나머지 사랑과 파트너 요인은 집착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애착특성이 집착행동을 유발해 파트너와의 관계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자의 관계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랑($\beta=.82, p<.001$)과 파트너 요인($\beta=.18, p<.05$)으로 경로가 유의미했으며, 집착행동이 관계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했다($\beta=-.16, p<.05$).

여학생의 집착행동 모형검증

모형 검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가설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3.12$, GFI=.76, AGFI=.66, NFI=.78, NNFI=.80, RMR=.07 등으로 χ^2/df 의 값이 높고 적합도 지표들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hi^2/df=1.28$, GFI=.90, AGFI=.84, NFI=.91, NNFI=.97, RMR=.05 등으로 향상되었다. 절대적 적합도 지표는 RMSEA=.05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더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다.

본 모형은 관계유지에 대한 변량의 78%를 설명하였다(SMC=.78). 허용되는 SMC의 범위가 .20에서 .99 사이이므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신 등, 2002).

표 10. 여학생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애착 → 집착행동	.67	7.87***
사랑 → 집착행동	.37	4.76***
파트너요인 → 집착행동	-.21	-2.77**
집착행동 → 관계유지	-.24	-3.73***
사랑 → 관계유지	.89	7.59***
파트너요인 → 관계유지	.26	3.2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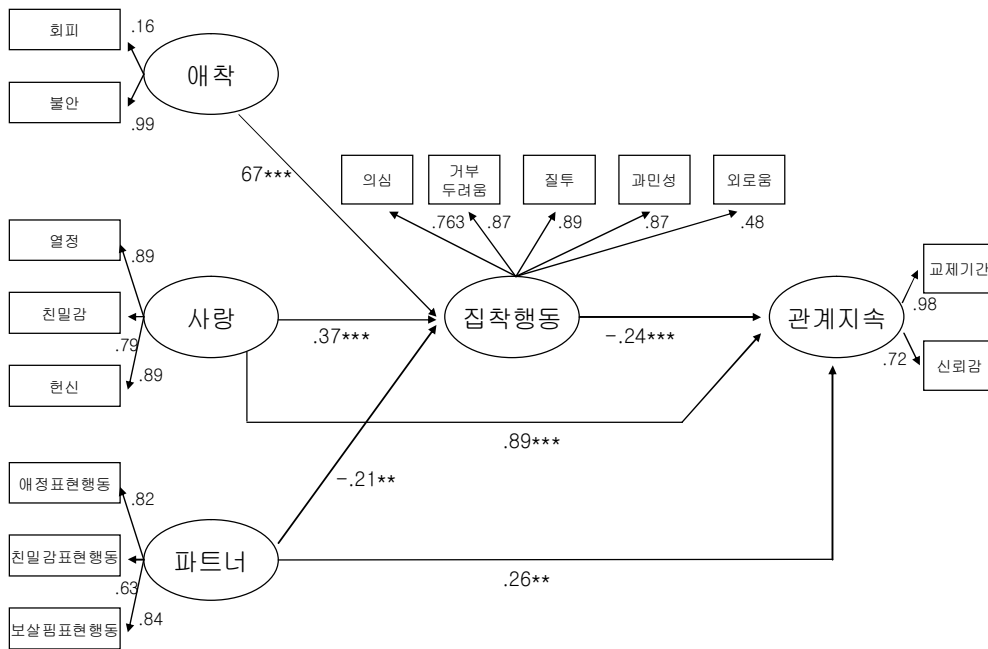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집착행동 모형검증

이성 관계에서 집착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표 10과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집착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나타났다. 즉, 개인의 애착특성($\beta = .67, p < .001$)과 사랑($\beta = .37, p < .001$), 그리고 파트너 행동($\beta = -.21, p < .01$)이 모두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했다. 또한, 관계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랑($\beta = .89, p < .001$)과 파트너 요인($\beta = .26, p < .01$)으로 유의미했으며, 집착행동은 관계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미했다($\beta = -.24,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이성관계에서 왜 집착행동을 하

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이전에 집착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을 살펴보기 이전에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내리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착행동에 대한 기존연구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국내에서 윤호균(2001)을 중심으로 집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만 그가 정의내린 집착은 본 연구에서 관심 있어 하는 이성관계에서의 집착행동과는 다른 의미였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집착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내린 연구는 없었으며 서양에서도 집착행동을 스토킹, 강박적 사랑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혼

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집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의 구성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이성관계에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첫째, 연구 1에서는 집착행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의 구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착행동의 개념을 하나로 축약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서양의 Tennov(1979)가 정의한 집착행동과 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구조를 확인한 결과 집착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과민성’,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거부두려움’,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의심을 하는 ‘의심’, 파트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질투심’,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을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불완전감’으로 최종 5개 요인이 확인 되었다. 이는 권석만(1997)이 기술한 애정관계의 방해요인 7가지 중 5가지와 일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성 간의 집착행동이 애정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연구 2를 위한 근거로 집착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 설문지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았는데 ‘너무 사랑해서’, ‘파트너가 인기가 많아서’, ‘파트너의 관심과 애정이 적음을 느낄 때’,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이유들이 기술되었다. 이는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성격특성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변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들은 연구2에 반영되었다.

연구 1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집착행동이라는 용어를 이성관계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집착의 사전적 의미로 통합해서 사용 한 듯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성관계에서의 집착은 좀 더 상황 특수적인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질투’, ‘의심’, ‘외로움과 불완전함’, ‘과민성’,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집착행동을 하는 이유도 개인마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이성관계에서의 집착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집착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된 연구이니 만큼 풍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비연구를 통해서 구성 개념을 찾고,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요인을 확인하였지만 다른 척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타당도 검증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고 보완 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예측하였으며, 집착행동이 어떤 경로로 관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t검증을 통해 집착행동의 남녀차를 살펴본 결과 집착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선천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분리’에 더 위협을 느끼고(Rubin, 1983), 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에서 재인용)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성은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집착행동을 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애착, 사랑, 파트너의 행동과 집착행동, 관계지속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집착행동이 관계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논하면, 남녀 모두에게서 부정적 애착이 집착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애착형성은 개인적인 성격특성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타인과 안정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파트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커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할까?와 같은 걱정을 하고,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이복동, 2001)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증폭되어 집착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랑요인과 파트너 행동요인은 여성의 경우에만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성의 집착행동은 개인적 특성에 귀인하고, 여성의 집착행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요인 즉, 사랑수준과 파트너의 행동특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에게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만 여성에게는 오히려 집착행동의 유발조건으로 작용하여 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은 파트너를 이상화하고 매력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헌신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집착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파트너의 행동도 여성의 집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논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인들의 변화에 남성과 달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Gilligan, 1982, Josephs et al., 1992; Markus & Oyserman, 1989; Piettomonaco & Carnelley, 1994).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애정 표현행동, 보살핌행동, 친밀감 표현행동이 평상시에 기대 한 것보다 적게 나타날 때 파트너의 사랑을 의심하여 불안 해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집착행동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교제 초기에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정표현행동, 보살핌행동, 친밀감 표현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다가 사랑이 확인되면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줄어들는다(Buss, 2004). 반면 여자는 처음에는 남자의 이러한 행동들에 의해 안정감을 느끼다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줄어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감을 느껴 집착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대로 연애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이고 회피중심적인 남자와 더 상대방 중심적이고 불안중심적인 여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정태연 등 2000). 즉 여자는 남자보다 타인 의존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타인들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Gilligan, 1982, Josephs et al., 1992; Markus & Oyserman, 1989; Piettomonaco & Carnelley, 1994) 남성과는 달리 파트너의 행동이 관계유

지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러한 파트너의 행동들 때문에 파트너에게 더욱 매달리고 사랑을 확인하려는 집착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통해 집착행동이 관계에서의 신뢰감 형성과 관계유지에 중요한 역할 변수임이 증명되었으며,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표집 과정에서 커플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비교적 갈등 상황이 적은 커플만 설문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집착행동의 평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상황에 처한 커플들은 연구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표집상의 문제들이 연구결과에 반영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이성교제의 경험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성별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 설계에 포함시킨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진경, 신수진, 최혜경 (2001). 결혼지속연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6.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97-524.

김미재 (2005). 성인애착, 책임귀인과 이별이후 성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은영 (2001). 사랑요인의 확인과 사랑척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 (2002). 집착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 및 이성 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민 (2006). 자기복합성, 사위정서, 경험수용 및 집착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유진 (2006). 성인애착 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운 (2000). 사랑의 요인분석: 성인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경애 (2003). 여대상의 이성교제 중 갈등표출행동 유형과 영향요인. 간호과학, 15(1), 50-60

오세진 (2005).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용홍출, 황경렬 (2006). 동, 서양 심리치료: 역기능적 상위인지, 상위 기분, 부정적 정서조절, 그리고 집착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 9(12), 15-31.

원상희, 허승 (2004). 집착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사회적 문제해결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2, 137-161,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유제민 (200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그 관리 방안. *학생생활연구*, 9, 97-108.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호균 (2001). 공상,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 접근의 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12(3), 1-18.
- 이경성 (2004).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성격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131-150.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2). 애착에 따른 이성간 지지행동의 차이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6).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6). 낭만적 사랑의 지속기간에 따른 애정표현행동의 변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37-155.
-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15(4), 93-111.
- 정민아 (2004). 청소년기의 이성간 사랑유형 분석: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최순남 (1989).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 31-67.
- Acker, M., & Davis,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21-50.
- Baxter, L. A. (1990).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69-88.
-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42-95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Attachment NY: Basic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Attachment NY: BasicBooks.
- Branden, N. (1988). A vision of romantic love. In R. J. Sternberg and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A. Ro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Park, CA: Sage.
- Cole, L. (1948).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Rinehart.
- Collins, W. A.,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In W. Furman, B. Brown, & C. Feiring(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W. A.,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vis, K. E., & Latty-Mann, H. (1987). Love styles and relationships quality. A contribution to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409-428.
- Demirtas, H. A., & Donmez, A. (2006).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Turkish Journal of Psychiatry*, 17, 181-191.
- Eric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oricis*. New york: W. W. Norton.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 (pp.128-154). NY: The Guilford Press.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198-1212.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rr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BeverlyHills, CA: Sage
- Hargie, O., Saunders, C., & Dickson, D. (1981). *Social skill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ambridge: Brookline Book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endric, C., & Hend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84-794.
- Hendric,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e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dy,C. G., Schwartz, J. C., & Schwartz, J. C.

- (1994). Anxious romantic attachment in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NY: the Guilford Press.
- Kelly, H. H. (1983). "Love and commitment." In H.H. Kelley et al. (Eds.), *Close Relationships*. NY: W.H. Freeman and Company.
- Kelly, D. L., & Burgoon, J. K. (1991). Understanding marital satisfaction and couple type as functions of relational expect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 40-69.
- Kemper, T. D., & Bologh, R. W. (1981). What do you get when you fall in love? Some health status effects.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3, 72-88.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e, J. A. (1988). Love styles. In R. Sternberg & M.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New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Y: Knopf.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47, 283-300.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755-773.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 Maxwell, G. M. (1985). Behavior of lovers: Measuring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15-238.
- Peele, D., & Brodsky, A. (1976). *Love and addiction*. NY: New American Library.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Pistole, M. C. (1994). Adult attachment styles: Some thoughts on closeness-distance struggles, *Family Press*, 33, 14-159.
- Reedy, M. N., Birren, J. E., & Schaie, K. W. (1981). Age and Sex differences in satisfying love relationships a cross the adult life-span. *Human development*, 24, 52-66.
- Reis, H. T. (1984). Social interaction and well-being. In S. W. Duck(Eds.), *Personal relationships 5: Repair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and NY: Academic Press.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95-112.
- Rholes, W. S., Simpson, J. A., & Orina, N. M. (1999). Attachment and anger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40-957.
- Rubin, L. B. (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an together*. NY: Harper & Row.
- Rubin, Z., Peplau, L. A., & Hill, C. T. (1981). Loving and leaving: Sex differences in romantic attachment. *Sex Roles*, 7, 821-835.
- Ruiter, C. (1994). Anxious attachment in agora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C. Perris, W. A. Arrinedll, & M. Eisenmann(Eds.),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pp.281-307). Chichester: Wiley.
- Shackelford, T. K., & Buss, D. M. (1996). Betrayal and the design of the mind. In J. A. Simpson & D. T. Kenrick(Eds.),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pp.73-107). Mahwah, NJ: Erlbaum.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 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pp.68-99). New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lman & W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4, London: Jessica Kingsley.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Tennov, L. (1979). *Love and limerence*. Chelsea: Scarborough House Publishers.
-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Westport: praeger.
- Wenzel, A., Graff-Dolezal, J., Macho, M., & Brendle, J. R. (2004).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505-519.

1 차원고접수 : 2008. 10. 27.

심사통과접수 : 2008. 11. 17.

최종원고접수 : 2008. 12. 9.

A search for components of limerence and its mediation effects in romantic relationships

Amy Woo

Junseong Park

Taeyun Jung

Korea Psychological Services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what is limer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limerence and its mediation effects in romantic relationships. To accomplish the purposes, this study was progressed in two process. The first study investigates concept and components of *limerence* using an open-ended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merence* was defined intrusive thinking about the object of your passionate desire who is possible sexual partner, acuting longing for reciprocation, dependency of mood on partner's actions or your interpretation of partner's a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bability of reciprocation. Second, components of *limerence* have been found suspicion, fear of rejection, jealousy, longing and imperfection, oversensitive. In the second study, I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limeren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mination. The components are Individual factor (unstable attachment), love factor, partner factor(liking expression, implying supporting, intimacy expression). To examine the integrated relation of each factor, It was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mination. As results, each factor affects *limerence*. In detail, unstable attachment has been found to be the biggest effector both male and female. that behaviors of a partner has been found to be effector only for female. partner factors and love factors(passion level, intimacy level, responsibility level) was examined as factor making *limerence* only for female, that partner factor(liking expression, implying supporting, intimacy expression) was examined as a factor decreasing limerence in gir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imerence* is not made from only individual factor. The results would help understanding *limerence* of romantic relationship and improving in romantic relationship.

Key words : *limerence, suspicion, fear of rejection, jealousy, longing and imperfection, oversensitive, individual facto(attachment), love factor, partner factor, gender category*